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  I. 기획예산실		○ 그 주요 사유로는 -시정개발연구원 청사 건립 117억74백만원 -목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1억 50백만원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확대 실시 10억64백만원 -서울시정 MVP선정 10백만원 -재정관리시스템 개발 4억원 <input type="checkbox"/> 기획예산 분야의 예산추이를 보면		
1. 총괄 <input type="checkbox"/>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중 기획예산 266억26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 128억66백만원에 비해 106.9%가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계	22,007	36,955	12,866	26,626
기 획 관 리	11,492	656	697	716
심 사 평 가	-	664	671	1,493
조 직 제 도	-	8,097	8,187	20,472
예 산 운 영	589	25,423	1,088	1,728
법 무 관 리	2,642	211	2,221	2,216
정 보 화 관 리	2,565	-	-	-
전 산 정 보 관 리 소	7,359	-	-	-
※ 2000년도부터 예산편성시 정보화관리항이 독립 2000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예산 200억원이 2001년도부터 행정관리로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획예산분야의 예산은 연도별로 불규칙한 것은 정보화분야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예산이 1999년도까지 기획예산에 포함되었으나, 2000년도부터 분리되고, 2001년도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예산이 행정관리로 이관되어 나타난 결과이고 기타 각 목별예산의 특이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사업별 분석		
2.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른 성과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서울시가 최초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한차원 높게 된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업무측정단위와 단위위원가의 설정 곤란으로 업무측정 단위의 적실성, 단위위원가 계산시 공통경비의 배분, 감각상각비 처리의 어려움, 최종목표인 성과와 업무진행중인 사업요소와의 혼란 등 극복해야 할 난제도 있으므로 약간의 저항과 집행상 어려움에도 성과주의 예산과 국·실장 책임제의 연계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긍정적		1) 성과지표 검증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은 1억 50백만원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성과지표개발을 위한 외부연구용역은 필요하나 국내에 전문가가 없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산정보 처리가 가능토록 개발되어 지속관리되도록 초점을 맞추어 과다용역비 산정이 아님을 파악 2)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실시는 10억 64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 80백만원이 증액되어 분야별 평가가 크게 늘어났으나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평가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각 구청별 나눠먹기식 평가는 문제점이 많음. 3) 서울시정 MVP 선정예산은 10백만원이 불과하나 MVP 선정방식이 기자단, 교수단에 의해 선정되어 편협한 시각으로 일반시민		

- 의 인식과는 관계가 멀다는 시각도 있음.
- 4)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시 사업은 1억 63억 6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6개 투자기관이 성격상 도철·지철 등 지하철 관련기관만 동일하고 나머지 4개 기관은 기업성격이 다르므로 동일잣대에 의한 평가가 곤란함.
  - 5)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은 79억 53백원으로 시정연의 인건비 및 연구비 등으로 매년 서울시가 출연금 형식의 예산을 주고 있지만, 운영독립이 어려운 실정이며 재단으로서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단기금 55억원으로는 재단의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연구원의 경제성을 신장시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연구인력(55) : 관리직(25)로 관리직 과다 문제
  - 6)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예산은 10억으로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 절약하는 구태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별 예산절감이 '눈가리고 아웅'식이 될 우려도 있으며,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 7) 재정관리시스템 개발은 정보화를 위한 외부용역사업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성과지표검증 용역과 병합하여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확인이 필요하며 정보화기획단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됨.
  - 8) 서울특별시의회정회 지원예산은 1억 81백만원으로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전액이 시예산으로 집행되기보다는 회원의 회비나 관련단체의 지원도 확보하는 등 자립기반 조성이 필요함.
  - 9) 시정개발연구원 청사 건립은 117억 74백만원의 예산으로 공무원교육원 내 부지에 2,160여평 규모로 건축되는 것은 그 동안 연구원이 잦은 이전으로 인한 연구활동의 지장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사업이나, 연구인력 81명, 위촉연구인력 160여 명 등 240명이 상시근무 하고 있고, 청사규모가 적어 추후 증축하게 될 우려가 있어 사전 조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연구소는 시 본청, 의회 등 관련기관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청사 건립시 고려되어야 함.
  - 10) 종합자료관 운영은 3억 83백원이 소요되

는 사업으로 서울시 청사 인근에 자료관이 종합자료관, 서소문 별관 자료실, 시의회 별관 자료실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의회에 설치하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며, 을지로 별관은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가 사용하기 때문에 청사관리를 기획예산실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서울시 본청 등이 사용하는 제반 부속시설은 행정관리국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음.

### II. 기관운영

시 전반적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비일상적인 업무추진 경비로 시장, 부시장단을 비롯한 시 본청, 인사 POOL 직원 등 총 2,612명에 대한 인건비로 규모는 2001년도 예산에 1,190억 46백만원으로 전년도 1,062억 19백만원에 비해 128억 26백만원(12%)가 증액된 것임. 또한 1999년도에는 1,167억 91백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점증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생각됨.

### III. 예 비 비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지침 55쪽에는 1.0% 이상을 확보하되 일반회계 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166쪽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0%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이라고 하여 지침내부에서 각기 다른 내용이 있음.
- 2001년도 서울시의 예비비는 감채목적 예비비 2,508억원, 교육청 전출 예비비 457억원, 조정수당 예비비 90억원, 일반예비비 807억원 등 총 3,862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1,695억 38백만원으로 128%가 증가된 것으로 '99년도 613억 54백만원(순수예비비), 2000년도 695억 38백만원, 2001년도 예산에 807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7조 1,790억원의 1%인

717억 90백만원으로 편성함이 행정자치부 편성기본지침에 맞으므로 예비비 편성도 가급적 지침에 맞추도록 조정이 되어야 함.

- 감채목적 예비비 2,508억원이 2001년도 편성이 되어 2000년도 대비 150%가 증액되어 서울시의 부채경감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행자부 지침에는 감채기금과 조례를 제정하여 부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방안이 더욱 좋은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통제가 느슨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겠음.
- 교육청 진출예비비 457억원은 중등교사 기본급 인상분이 지방자치단체부담이 예상되어 편성된 것이며, 조정수당예비비는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예비비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됨.

#### IV. 재정투융자기금

##### □개관

1992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조례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동 기금을 설치하여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조성, 다른 특별회계와 기금, 시산하 공사, 구청에 융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1999년 1조 6,492억원, 2000년도 1조 7,589억원, 2001년도 1조 7,964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음.

##### □세부사항

- 예산총괄주의의 예외적인 체제인 기금은 서울시에 1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규모는 1조 6,587억원으로 일반회계 8조 1,502억원의 20.3%를 차지하여 중앙정부의 70~80% 수준에 비하면, 큰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기금의 설치가 재원 마련과 사용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기하는 데 있지만 기금간, 특별회계간 자금의 흐름이 복잡하여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곤란함.
- 2001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융자금 회수액이 397억 20백만원이고, 신규융자금 791억원이므로, 실제 지원되는 기금은 393억 80백만원인 것처럼 일반회계, 10개 특별회계, 14개 기금간의

예산의 입·출 그리고 기금의 조성과 지출등을 통해서 복잡한 자금 흐름을 갖고 있어 각 위원회별 기금의 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기금을 통제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자금관리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음.

- 지하철공사 500억원, 도시철도공사 500억원 등 1,000억원이 2001년도 융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68조및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채발행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채무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이 가능토록 해야 함.